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7일

CUOMO 주지사, 10월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3년 10월을 뉴욕주의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하하면서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10월 16일 수요일에 보라색 옷을 입고 뉴욕주가 개최하는 연례 Shine the Light on Domestic Violence 캠페인에 참석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뉴욕주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정의를 돌려주고 범죄자에게는 이런 형편 없는 행동에 대한 정당한 죄값을 받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10월의 가정폭력 인식의 달 지정과 Shine the Light 캠페인은 뉴욕 주민들이 가정폭력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우리 커뮤니티에게 우리 뉴욕주에서 이러한 가정폭력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가정폭력예방사무국(OPDV)에서 마련한 Shine the Light 캠페인은 10월 한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정폭력 인식과 오랫동안 연관되어 온 보라색 컬러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아가라 폭포, Syracuse 대학교의 Hall of Languages, Schenectady 시청, 뉴욕주립대 행정관(State University of New York’s Administration Building), Mid-Hudson Bridge, 타임스퀘어를 포함해 뉴욕주 전역에 자리한 랜드마크와 건물들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라색 등으로 장식될 것입니다.

OPDV의 Gwen Wright 실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10월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례 행사인 Shine the Light 캠페인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저렴하거나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뉴욕주에 사는 개인과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인식이 가정폭력 예방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정부, 법원, 민간 기업, 칼리지, 비영리 기관, 법집행 기관,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Korean

뉴욕주에 있는 500여 단체들은 2008년 이후로 이 캠페인에 참여해왔습니다.

보라색 등을 사용하여 건물과 기타 구조물에 조명을 비추는 것 외에도 각 단체들은 "살아 있는" 보라색 리본을 만들고, 보라색 옷을 입고 상징적 현대로 사진을 찍고, 보라색 물건 찾기 게임을 개최하고 배너를 걸고 가정폭력 인식 메시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들과 손목 밴드를 나눠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Shine the Light 캠페인에 참가하는 단체와 개인은 10월 16일 또는 10월의 다른 날에 보라색 컬러의 옷으로 갈아입거나 보라색으로 변신하여 사진을 찍어 opdvpurple@opdv.ny.gov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OPDV가 Facebook(www.facebook.com/nysdomesticviolence)과 Twitter(@NYSOPDV)로 이를 공유할 것입니다. Twitter: #shinethelight 대화에 함께 하십시오.

뉴욕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가정폭력과 싸우고 이를 예방하는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자급 기관을 둔 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여성과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가정폭력에 대한 주 및 지방의 대응 방식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대응 방식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 가정폭력의 생존자들이 가해자들과 관계를 보다 안전하게 단절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은 가중 가정폭력을 새로운 중범죄로 만들어 가정폭력 상습범들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경범죄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5년 내에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에게 특정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된 이력이 있는 피고인은 이제 중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판사들은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보석 또는 방면을 결정할 때 소형 화기 소지 이력과 이의 사용, 보호 명령 위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또한 가정폭력을 통지 받으면 보험회사에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기밀 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하고 보호 명령 대상이거나 어떤 이의 사망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장례 또는 매장 절차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민사 상의 필요성도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뉴욕주 무료 핫라인인 1-800-942-6906 또는 1-800-942-6908(스페인어)으로 전화하면 하루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자녀들에게 상담 및 쉼터 제공과 같이 이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뉴욕주 CADV(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웹사이트: www.nyscadv.org에서 얻을 수 있고, 뉴욕주 OVS(Office of Victim Services)(www.ovs.ny.gov)도 뉴욕주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186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rean

가정폭력예방사무국(www.opdv.ny.gov)은 주 및 지방 커뮤니티의 가정폭력 대응을 개선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OPDV는 실무집행관리(Executive staff)에게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주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공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아동 복지, 법집행 및 보건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